

2018년 서울시 9급 한국사(3월 24일 시행) - B책형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보기>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그는 평안도 양덕 사람으로 (중략) 체격이 장대하고 지기가 왕성하였는데, 비록 글은 배우지 못하였으나 천성적인 의협심이 있어, 남을 돕는 일을 급무로 삼은 연유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1907년 겨울에 차도선, 송상봉, 허근 등 여러 사람들과 의병을 일으켜 (중략) 전투를 벌였다.

- ① 산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구성하였다.
- ② 주요 활동지는 함경도 삼수, 갑산 등지였다.
- ③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④ 13도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하였다.

1.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홍범도이다.

④ 정미 7조약 체결과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1907년 12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여 13도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 진공을 계획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08년 1월에는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①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의병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일제의 괴뢰가 된 한국 정부는 1907년 9월 6일에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발표하여 민간에 있는 총기와 화약류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당시 홍범도는 함경남도 북청군 안산사에서 산포수들의 상호부조 조직인 포연대의 책임자로 있었다. 바로 산포수들에게는 일제를 반대하는 문제와 생활을 지키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홍범도는 차도선과 더불어 산포수를 중심으로 여기에 북청진위대의 해산병까지 포섭해서 의병부대를 조직했다. ② 홍범도는 일제 회유책으로 차도선과 연합 의병부대가 타격을 입은 후에도 의병 재편에 정진했다. 1908년 4월부터 5월까지 삼수·갑산·북청 일대의 산포수와 청년들을 권유하여 의병에 가담시켰다. 이후 의병의 전열을 가다듬은 홍범도는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십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다. ③ 1920년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은 백운평 전투, 천수평과 어랑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 국민회군, 도독부군, 대한 의민단군 등 독립군 연합 부대도 완루구에서 일본의 대병력과 교전하여 일본군을 크게 격퇴하였다. 이어서 독립군은 26일까지 일본군과 싸워 연전연승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다.

2. <보기>의 선언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중략)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르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르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하략)

- ① 오성륜, 김익상, 이종암이 상해 황포탄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였다.
- ②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다.
- ③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이 상해 육삼정에서 일본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
- ④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천장절 행사에 폭탄을 던졌다.

2.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의열단의 강령인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이다.

- ① 의열단원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 등은 1922년 상해 황포탄에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한 후 체포되었다.
- ②, ④ 한인 애국단의 대표적 인물로는 1932년 1월 일본 국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과, 1932년 4월 상해에서 열린 천장절 기념행사에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이 있다. ③ 흑색공포단 단원이었던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등은 1933년 3월 상하이 홍커우(虹口)에서 중국 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육삼정(六三亭)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백정기는 옥사하였다. 해방 이후 1946년 박열, 이강훈 등 아나키스트계 독립 운동가들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의사의 유골을 일본으로부터 회수하여 7월 6일 국민장을 실시하였고, 현재 효창공원 3의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3. 고구려와 관련된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 | |
|-------------|--------------|
| ㄱ. 평양 천도 | ㄴ. 관구검과의 전쟁 |
| ㄷ. 고국원왕의 전사 | ㄹ. 광개토왕릉비 건립 |

- | | |
|-----------------|-----------------|
| ① ㄷ - ㄱ - ㄹ - ㄴ | ② ㄱ - ㄷ - ㄴ - ㄹ |
| ③ ㄴ - ㄷ - ㄹ - ㄱ | ④ ㄹ - ㄴ - ㄱ - ㄷ |

3. 정답 : ③

ㄴ. 동천왕 18년(244)에 위나라 장수 관구검(毌丘儉)의 반격을 받아 수도 국내성의 북쪽 배후산성인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ㄷ.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371). ㄹ. 광개토대왕릉비는 장수왕 대인 414년에 건립되었다. ㄱ. 고구려의 평양 천도는 장수왕 대인 427년의 사실이다.

4.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경국대전』 : 조선의 통치 규범과 법을 정리하였다.
- ㄴ. 『동문선』 :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하였다.
- ㄷ. 『동의수세보원』 :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을 확대하였다.
- ㄹ. 『금석과안록』 :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 ③ $\neg$, $\equiv$
④ $\perp$, $\equiv$

4. 정답 : ③

7. 조선 세조 대 편찬 작업이 시작되고 성종 대 완성·반포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조선 후기까지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경국대전』 편찬은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제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8. 『금석과안록』은 김정희가 쓴 금석문(金石文) 관련 저술로써 김정희는 북한산비와 황초령비를 판독하여 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나. 『동문선』은 조선 성종(1478) 때 서거정 등이 신라에서 조선 초까지의 시문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고,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서적은 세종 대 편찬된 『향약집성방』이다. 다.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힌 역사서는 조선 후기 한치윤이 저술한 『해동역사』이다. 『동의수세보원』은 이제마가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태음인·소양인·소음인으로 구분한 ‘사상의학(四象醫學)’에 대한 내용이다.

5. <보기>는 개항 이후 각국과 맺은 조약이다. ㉠과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보기>

- (가) 조선국은 ㉠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금후 양국이 화친의 성의를 표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써 상대할 것이며 추후도 경계를 넘어 침입하거나 시기하여 싫어함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나)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는 같지 않으므로 여기에 각항 약정을 한다.

- ① ㉠ 인근국 - ㉡ 속방 ② ㉠ 자주국 - ㉡ 우방
③ ㉠ 인근국 - ㉡ 우방 ④ ㉠ 자주국 - ㉡ 속방

5. 정답 : ④

(가)는 1876년 일본과 맺은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나)는 1882년 청과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 일본이 조·일 수호 조규에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기한 것 자체가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근대 조약에서는 조약국의 대내외적 지위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명시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중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조선

문제에 정국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조·정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첫 머리에 조선은 청국의 제후국이고 청의 속방이며, 따라서 본 장정이 조선이 다른 외국들과 맺은 조약과는 명백히 다름을 밝히고 있다. 명칭이 ‘조약’이 아닌 ‘장정’인 것 자체가 조선의 청국에 대한 종속성을 전제로 하였다.

6.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이 법령에 의해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은?

<보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의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중략)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
- ② 조선공산당 사건
- ③ 수양동우회 사건
- ④ 조선어학회 사건

6. 정답 : ①

제시된 법령은 1925년에 반포된 ‘치안유지법’이다.

① 의열단원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투탄 후 일본 군경과 총격전 끝에 자결한 것은 1923년의 일로,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다.
 ② 1920년대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편,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등의 좌파 이론도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그를 봉쇄하기 위하여 일제는 조선공산당이 창립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탄압하였다. ③ 일제는 중국 침략을 앞두고 일체의 민족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을 일으켰고, 안창호 등 동우회 회원 150여 명을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④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고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켜 조선어 학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조선어 학회를 해산시켰다.

7. <보기>의 유적들이 등장한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서울 암사동 유적	○ 제주 고산리 유적
○ 양양 오산리 유적	○ 부산 동삼동 유적

- ① 움집을 청산하고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 ② 벼농사를 위하여 각종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
- ③ 조개무지(폐총)를 많이 남겼다.
- ④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이 발전하였다.

7. 정답 : ③

제시된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③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되었으나 농업 생산력이 높지 않은 때로, 강가나 바닷가에 서 어로 생활을 병행하였다. 이로 인해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조개무지(패총) 유적이 많이 나타난다.

① 지상 가옥은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하여 철기 시대에 일반화되었다. ②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시대부터이다. ④ 청동기 시대에는 배산임수의 취락 구조를 형성하고 목책 및 해자를 파는 등 방어 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8. <보기>의 백과사전(유서)을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동운부군옥	ㄴ. 지봉유설
ㄷ. 성호사설	ㄹ. 오주연문장전산고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ㄱ → ㄷ → ㄴ → ㄹ

④ ㄱ → ㄹ → ㄷ → ㄴ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8. 정답 : ①

ㄱ. 『대동운부군옥』은 권문해가 조선 선조 대 어휘의 마지막 운(韻)으로 어휘를 분류한 사전으로 지리, 역사, 인물을 총망라하여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ㄴ. 『지봉유설』은 이수광이 광해군 대 천문·지리·군사·관제 등 문화의 각 영역을 25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다. ㄷ. 『성호사설』은 조선 영조 대 이익이 천지·만물·인사·경사·시문의 5개 분야에 걸쳐 설명한 것이다. ㄹ.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이규경이 19세기 중반(현종 연간) 역사, 경학, 천문, 지리, 광업, 화폐, 음악 등 중국과 우리나라 고급의 사물 1,417항을 고증적 방법으로 설명한 책이다.

9. <보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흥행에 성공하였던 영화의 줄거리이다. 이 영화가 상영되던 시기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영진은 진문학교를 다닐 때 독립민세를 부르다가 왜경에게 고문을 당해 정신이상이 된 청년이었다. 한편 마을의 악덕 지주 천가의 며슴이며, 왜경의 앞잡이인 오기호는 빚 독촉을 하며 영진의 아버지를 괴롭혔다. 더욱이 딸 영희를 아내로 준다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고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중략) 오기호는 마을 축제의 어수선한 틈을 타 영희를 겁탈하려 하고 이를 지켜보던 영진은 갑자기 환상에 빠져 낯을 휘둘러 오기호를 죽인다. 영진은 살인혐의로 일본 순경에게 끌려가고, 주체곡이 흐른다.

① 역사학: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조선학 운동이 시작되었다.

② 문학: 민중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여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문학으

로 발전했다.

③ 음악: 일본 주류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 양식이 정립되었다.

④ 영화: 일제는 조선영화령을 공포하여 영화를 전시체제의 옹호와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9. 정답 : ②

제시된 영화는 나운규의 '아리랑' 줄거리로, 1926년에 상영되었다.

② 3·1 운동 이후 노동자·농민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임화, 김기진 등의 신경향파 문학가들은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문인들을 비판하면서 현실 참여적 문학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1925년 KAPF(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① 1934년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 『여유당전서』를 간행한 것을 계기로 기존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국수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 근대 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는 조선학 운동이 일어났다. ③ 1920년대 중반에는 신파극 주제가같은 유행창가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중가요는 음반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유통되어 전통 민요와 판소리 영역을 잠식해갔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일본식 유행가풍의 '뽕짝'으로 불리는 대중가요의 전형이 확립되는데, 뽕짝과 결합한 신민요가 등장해 뽕짝의 토착화를 이루었다. ④ 일제는 1940년에 「조선영화령」을 제정하여 우리 영화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으며, 영화를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10.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일본군이 인천항에 정박한 러시아군함 2척을 공격
- ㄴ. 대한제국정부의 국외중립 선언
- ㄷ. 일본군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 ㄹ. 한일의정서 체결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ㄱ - ㄷ - ㄹ - ㄴ

④ ㄴ - ㄹ - ㄷ - ㄱ

10. 정답 : ②

ㄴ. 러·일 전쟁의 전운이 감돌자 고종은 1904년 1월 대한 제국의 대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ㄱ. 1904년 2월 9일 일본은 인천 앞바다에 있던 두 척의 러시아군함을 격침시키고, ㄷ. 다음날인 2월 10일에 러시아에 선전포고하였다. 2월 12일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을 빠져나갔고 사실상 서울을 점령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다. 친러파 탁지부 대신 이용익을 일본으로 납치하고, 기타 친러파 인사들을 감시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ㄹ.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대한제국은 2월 23일 하는 수 없이 외부대신 이지용을 내세워 일본공사 하야시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1. <보기>의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각 군사 사절단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중략) 앞의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 ①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 ②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모여 회담을 한 후 나온 선언이다.
- ③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했다.
- ④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30년간의 신탁통치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11. 정답 : ②

제시된 선언문은 1943년에 발표된 카이로 선언이다.

② 카이로 선언은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모여 회담한 것이다.

①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은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이다. ③ 소련의 대일 참전이 결정된 것은 얄타 회담 이후이다. ④ 미국이 신탁통치안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얄타 회담 때이다.

12. <보기>의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ㄴ. 조선인민군 창설
ㄷ. 토지개혁 실시
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ㅁ. 북조선노동당 결성
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② ㄱ - ㄷ - ㅁ - ㄴ - ㄹ - ㅂ
- ③ ㄱ - ㅁ - ㄷ - ㄹ - ㄴ - ㅂ
- ④ ㄱ - ㅁ - ㄴ - ㄷ - ㄹ - ㅂ

12. 정답 : ②

ㄱ. 북조선 5도 임시 인민위원회 성립은 1945년 10월 8일, ㄷ. 북한의 토지 개혁은 1946년 3월, ㅁ. 북조선 노동당 결성은 1946년 8월, ㄴ. 조선인민군 창설은 1948년 2월 8일, 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첫 실시는 1948년 8월 25일, 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은 1948년 9월 9일의 일이다.

13. <보기>의 왕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하였다. 왕이 독촉하자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를 시켜 사로잡게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관직과 주현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로 바꾸었다.
- ② 귀족과 관리에게 주던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진을 세웠다.
- ④ 위홍 등이 향가를 모아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13. 정답 : ④

제시된 사료의 원종과 애노의 난(889)은 9세기 후반 진성여왕 재위기(887~897)의 사건이다.

④ 『삼대목』(888)은 신라 말 진성 여왕이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에 명하여 편찬하게 한 향가집이다.

① 한화정책으로 관직과 지명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꾼 것은 경덕왕 대의 일이다. ② 귀족과 관리에게 주던 녹읍을 폐지(689)한 것은 신문왕, ③ 흥덕왕 대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828)하여 해상 세력을 형성하였다.

14. <보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왕은 당이 내분으로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동경으로 옮겼다. 또한 대흥, 보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① 산둥지방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 ②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 ③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 ④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1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국왕은 발해 '문왕'이다.

③ 발해 문왕의 존호인 '대흥보력효감륜륜성법대왕'을 통해 문왕이 불교의 이상적인 제왕인 전륜성왕을 자처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문왕의 딸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석에서는 아버지 문왕을 '대왕', '황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발해 선왕 때에는 국가적 중흥기로서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① 8세기 전반 발해는 흑수말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립하였고, 이에 무왕은 장문휴의 수군으로 하여금 당의 산둥 반도의 덩저우를 공격하게 하였다. ④ 발해 고왕(대조영)은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진(震)’이라고 하였다.

1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재신(宰臣)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침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와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妃嬪)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 『효종실록』 -

- ① 대원군에 의해 기능이 강화되었다.
- ②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 ③ 봉당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 ④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

15. 정답 : ②

제시된 사료와 관련된 기구는 ‘비변사’이다.

- ②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 군사·행정·외교 등을 총괄하는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종래에 국가 정책을 총괄하던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을 분담하여 집행하던 6조의 기능도 약화되었다.
- ① 흥선 대원군은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여 군국 사무만 담당하게 하였고, 국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은 의정부에 부여하였다. ③, ④ 비변사는 삼포왜란 때(중종 5, 1510) 국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을묘왜변(1555) 이후 상설 기구화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16. <보기>의 단체가 존속한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

<보기>

- 사회주의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열의 합작으로 구성되었다.
- 설립 당시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가 맡았다.
-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를 두고,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① 광주학생독립운동
- ② 원산총파업

- ③ 단천산림조합시행령 반대운동
- ④ 암태도소작쟁의

16.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체는 신간회(1927~1931)이다.

④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에서 고율의 소작료를 4할로 내릴 것과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비용을 지주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1924년까지 이어졌다.

① 신간회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한 뒤, 민중 대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반일 시위운동을 전개하려 시도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허헌(許憲)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다수가 일제에 의해 구금되었다. ②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8년 9월 문평 석유 공장의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3,000여명이 조직적으로 파업을 전개하였으며 1929년 1월에서 4월에 걸쳐 원산의 노동자 1만여 명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맹 파업을 감행하였다. ③ 1929년 7월 함경남도 단천(端川)에서 농민들이 일제의 산림조합 설치를 반대하는 대대적 운동을 일으켜 60여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단천에 파견하여 농민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7.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한 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해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 ① 『목민심서』를 저술하는 등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 ②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체계화할 목적으로 『발해고』를 저술하였다.
- ③ 전국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정리한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 ④ 천지·인사·만물·경사·시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비판한 『성호사설』을 저술하였다.

17.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성호 이익의 '한전론'에 대한 내용이다. 이익은 『곽우록』에서 한전론을 주장하면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을 인정하고, 영업전의 매매는 철저히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외의 토지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④ 『성호사설』은 이익의 사상이 담겨 있는 저술로서 천지문(天地門)·만물문(萬物門)·인사문(人事門)·경사문(經史門)·시문문(詩文門)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비판하였다.

- ① 『북민심서』를 저술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은 정약용이다. ② 『발해고』를 저술하여 ‘남북국 시대’를 제시한 인물은 유득공이다. ③ 『택리지』를 저술한 인물은 이증환이다.

18. <보기>는 어느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보기>

하늘이 재능을 균등하게 부여하는데 관리의 자격을 대대로 베풀하던 집안과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제가 모자라 애태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노비나 서열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 했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 ① 이황 ② 이이
③ 허균 ④ 유형원

18. 정답 : ③

③ 제시된 자료는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유재론」의 내용 중 일부이다. 허균은 유교적 신분사회에서 소외당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현실고발 성격을 띠는 소설과 함께 논설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사회 비판을 시도하였다. 「호민론(豪民論)」, 「유재론(遺才論)」, 「관론(官論)」, 「정론(政論)」, 「병론(兵論)」, 「학론(學論)」이 그것이다. 특히 하늘이 재능 있는 사람을 내었는데 사람이 문벌과 과거로써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유재론」에서는 부당한 신분제도와 서열차별을 비판하였다. 허균의 이러한 주장의 취지는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정치의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9. <보기>에서 조선 전기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무위사 극락전 ㄴ. 법주사 팔상전
ㄷ. 금산사 미륵전 ㄹ. 해인사 장경판전

- ① $\neg$, $\exists$
② $\neg$, $\forall$
③ $\sqsubset$, $\exists$
④ $\neg$, $\sqsubset$

19. 정답 : ①

ㄱ. 강진 무위사 극락전은 1430년(세종 12년)에 목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 초기의 주심포(柱心包)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ㄴ. 함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시대 제작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기록에 따르면 1481년(조선 성종 12년)에 고쳐짓기 시작하여 1488년(성종 19년)에 완공되었다.

ㄴ, ㄷ. 17세기에 지어진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보은 범주사 팔상전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이다.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20.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지방관은 행정·사법권을, 별도로 파견된 진장·영장은 군사권을 보유하였다.
- ② 고려에서 상급 향리는 과거 응시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 ③ 조선에서 지역 양반은 유향소를 구성하여 향리를 규찰하고 향촌 질서를 바로잡았다.
- ④ 고려의 지방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성되었다.

20. 정답 : ①

① 조선 시대 부, 목, 군, 현에 파견된 지방관(수령)들은 각각의 행정 단위에서 행정권·사법권·군사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조세와 공납을 징수하는 등 실제 행정을 담당하였다. 한편 진장(鎭將)과 영장(營將)은 조선 후기 인조 대 각 도의 지방 군대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진영(鎭營)의 정3품 당상직 장관을 말하는데, 이들 모두는 겸직으로서 중앙은 판관(判官)이나 중군(中軍) 및 경기 일원의 부사·목사가 겸임하였고, 각 도는 수령(守令)이 겸하였다.

② 고려 시대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인 향리는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에 있어서 귀족과 차별이 없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의 문무반이 될 수 있었다. ③ 조선 시대 향촌 사족 유지들로 구성된 유향소는 향촌 자치를 위하여 각 군현에 설치되어 수령의 감시·보좌, 향리 규찰, 정령의 시달, 풍속 교정 등을 담당하며 지방 행정에 참여하였다. ④ 고려 시대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존재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주현의 지방관이 속현까지 관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나 부역 징발, 공물 징수 등 속현의 실제 행정은 그 지역의 향리가 담당하였다.